

투석전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우울증 및 불안증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

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삼성창원병원 신장내과

김민수 · 이유지 · 조성 · 김성록 · 이제운

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, Anxiety and Health-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Patients with Predialysis Chronic Kidney Disease

Min Su Kim, Yu-Ji Lee, Seong Cho, Sung Rok Kim, Jae Un Lee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Samsung Changwon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

목적: 우울증과 불안증은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자살, 피로, 수면장애, 통증 등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망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규모 역학 연구는 드문 편이다. 특히 투석 전 만성신질환 환자에서의 우울증 및 불안증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는 드물다. 이에 저자들은 투석전 3-5기 만성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및 불안증의 유병율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 및 우울증과 관련 있는 인자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단면연구로 투석전 만성신질환 3기-5기 환자를 2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우울증 및 불안증의 정도는 병원 불안증-우울증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, 불안하부척도 8점 이상, 우울하부척도 8점 이상을 각각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. 환자의 삶의 질은 WHOQOL-BREF 설문으로 평가하였다.

결과: 대상환자들의 나이는 56.1 ± 13.7 세, 남자가 62.1%였으며 사구체여과율은 30.6 ± 14.1 ml/min/1.73m² (만성신질환 3기 49.8%, 4기 33.0%, 5기 17.2%) 이었다. 우울증의 유병율은 47.3%, 불안증의 유병율은 28.1%였다. 우울증 유무에 따른 환자의 기본적 특성 비교상 우울증이 있는 환자의 나이가 없는 환자에 비해 더 많았고 (평균 58.5세 vs 53.9세), 흡연율도 더 높았다 (19.8% vs 7.5%). 또한 사구체여과율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(평균 28.4 vs 32.7 ml/min/1.73m²). 동반질환지수도 우울증 환자에서 더 높았고,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는 더 적었다. 우울증이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 WHOQOL-BREF의 각 영역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,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및 건강 만족도를 고려한 전체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. 그러나 만성신질환의 정도 (3기-5기)에 따른 우울증 및 불안증의 유병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단변량 분석에서 우울증은 나이, 흡연, 취업, 고정수입 유무, 동반질환지수, 불안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고, 모든 영역의 삶의 질 및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불안증 역시 삶의 질 및 만족도와 연관이 있었으나 사회경제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었다.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동반질환지수 (odds ratio (OR)=1.982, p=0.026), 흡연 (OR=6.194, p=0.007), 불안증 (OR=13.527, p=0.000), 전체 삶의 질 점수 (OR=0.925, p=0.000)가 우울증과 관련 있는 변수였다. **결론:** 비교적 신기능이 보존된 투석 전 만성신질환 환자에서도 우울증과 불안증의 유병율이 높았다. 우울증과 불안증은 삶의 질 저하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, 특히 우울증이 동반질환수와 불안증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여 이러한 질환들의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투석 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

Key Words: 만성신질환, 우울증, 삶의 질

Chronic kidney disease, Depression, Quality of life